

- 책을 내면서

안녕하세요, 실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어 독해 지문을 읽는 논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마땅한 교재 및 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지금 설명 드리고자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된 구성연입니다. 언어는 나름대로의 체계와 구조가 있는 바, 영어로 이루어진 글도 분명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 체계가 있으며 그 체계를 따라 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과 제 주변의 지인들이 효과를 보았던 만큼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도 분명 소기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영어로 이루어진 글을 영어답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자 구성연 올림

구성연 지음

-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영어의 小理(문법편)」, 「논증과 추론」 집필
-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목동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는 www.tstb.co.kr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험 영어에 필요한 교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 목차 -

chapter 1 서술형 시험(writing)이라고 생각하자.	--- p 4
- 2013년 대수능 26번(6쪽)	
- 2012년 국가직 9급 15번(9쪽)	
- 2014년 대수능 31번(11쪽)	
- 2011년 9월 평가원 25번(14쪽)	
- 2012년 법원직 9급 3번(18쪽)	
- 2011년 법원직 9급 13번(21쪽)	
- 2013년 대수능 25번(24쪽)	
- 2015년 대수능 31번(29쪽)	
chapter 2 본격적인 논증과 추론의 시작	--- p 33
- 2015년 대수능 32번(34쪽)	
- 2012년 지방직 9급 15번(38쪽)	
- 2014년 대수능 35번(41쪽)	
- 2014년 대수능 34번(45쪽)	
- 2012년 법원직 9급 23번(49쪽)	
- 2013년 대수능 23번(52쪽)	
- 2011년 대수능 28번(55쪽)	
- 2009년 지방직 9급 12번(58쪽)	
- 2011년 9월 평가원 30번(60쪽)	
chapter 3 이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맞아?	--- p 64
- 2011년 9월 평가원 28번(65쪽)	
- 2011년 대수능 26번(69쪽)	
- 2011년 대수능 29번(73쪽)	
chapter 4 빈칸문제의 아류(?)들	--- p 76
- 2015년 대수능 37번(77쪽)	
- 2011년 대수능 44번(80쪽)	
- 2011년 법원직 9급 18번(82쪽)	
문제에 대한 해석들	--- p 84

Chapter 1 서술형 시험(Writing)이라고 생각하자.

- 주제야 어디 있니? -

- 빈칸 문제 접근법 -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수험 문제는 대부분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의 경우도 그러하며 7, 9급 공무원 영어 시험 또한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빈칸 시험을 접근하려 할 때 보기를 먼저 보고 글의 흐름과 맞는 선지를 답으로 고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으로, 빈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 과정을 얼마나 논리 있게 잘하는가를 요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어떤 지문을 읽든 지문의 한 단락에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읽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행동이며, 공신력 있는 시험은 모든 답에 대한 근거가 지문에 있어야 하는 관계로 빈칸의 답의 힌트는 항상 지문에 있으며 그 지문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조합하여 서술형식으로 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방향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고 문제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단어가 일반적으로 다 대체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different ≙ not same ≙ various ≙ specific

VS

same ≙ not different ≙ simple ≙ universal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eir clothes look **different** in my eyes. = Their clothes look **various** in my eyes.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외계어 처럼 들리기 시작하므로 이에 대한 제 설명을 먼저 숙지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한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보기를 먼저 보지 않고 제가 말한 저 과정을 다 거친 후 서술형으로 답을 찾고 나서 문제의 선지를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선지를 먼저 보시면 다 말이 되고 답이 되는 것 같아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보기를 같이 편집하지 않았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26번 빈칸 문제

By likening the eye to a camera, elementary biology textbooks help to produce a misleading impression of what perception entails. Only in terms of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 do the eye and camera have anything in common. Both eye and camera have a lens that focuses light rays from the outside world into an image, and both have a means of adjusting the focus and brightness of that image. Both eye and camera have a light-sensitive layer onto which the image is cast (the retina and film, respectively). However, image formation is only the first step towards seeing. _____ obscure the much mor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which is that the camera merely records an image, whereas the visual system interprets it. [3점]

자, 지문을 읽었으면 다음의 과정을 꼭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그럼 위의 과정을 거쳤다는 가정 하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이 글의 소재는 “눈과 카메라”, 또는 “눈과 카메라의 비유/비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눈과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그 대상 분석 과정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존재이므로 단순히 둘을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읽고 나서 주제 파악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의 단어 부족 또는 국어 능력 부족 둘 중의 하나가 문제가 있어 생기는 현상이니 꼭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영어는 단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으니까요.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이 문제는 전형적인 주제를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paraphrasing(상세히 바꿔 쓰기) 문제였습니다. 즉, 주제가 되는 문장인 “By likening the eye to a camera, elementary biology textbooks help to produce a misleading impression of what perception entails.” 부분과 “_____ obscure the much mor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부분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produce a misleading impression of what perception entails.

VS

obscure the much mor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produce a misleading impression = obscure the much more fundamental difference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바꿔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와 닿게 됩니다.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내다.

VS

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려버리게 한다.

영어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즉, 눈과 카메라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은 분명 이 글의 주제에 따르면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눈과 카메라 사이의 차이점을 가려버리게 한다는 것도 이 글의 주제에 따르면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두 문장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나머지 문장도 같은 방향성을 가질 것이 100%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 By likening the eye to a camera = _____

즉, 빈칸의 답은 By likening the eye to a camera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눈과 카메라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표기해 놓으시고 선지로 내려가도 되는 것이죠. 이제 답을 찾았으니 마지막 3단계로 가볼까요?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이제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Apparent differences in the focusing power of a lens
- ② Superficial analogies between the eye and a camera
- ③ Contrasts in light adaptation between the retina and film
- ④ Misunderstandings of image formation in the eye and a camera
- ⑤ Close relationships between imag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자,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깝게 풀어놓은 선지는 몇 번인가요? 네, 바로 2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nalogies**라는 단어가 **비유, 유추**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 이죠.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영어 시험 15번

Farmland provides more than just crops for human and animal consumption. It provides raw materials used to make building materials, paper, and fuels. The lives of many people also revolve around farming, which gives them the driving force that keeps them alive. Farmland, however, has slowly been eliminated by urban sprawl, in which people in urban areas spread into and take over rural areas. In the near future, urban sprawl is going to leave us with a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We need to be aware of the potential risks in future years and _____.

이번에는 9급 공무원 시험의 빈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3단계 잊으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일단 1번과 2번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셨나요? 다 하셨다고 가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글의 소재는 “농장지의 스프롤 현상(urban sprawl : 도심지가 외곽으로 무한정 확장되어 나아가는 현상)으로 인한 위험” 정도로 잡으시고, 주제는 “스프롤 현상으로 인한 위험한 결과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빈칸의 앞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In the near future, urban sprawl is going to leave us with a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VS

We need to be aware of the potential risks **in future years** and _____.

위의 문장을 보시다시피, 미래에 스프롤 현상이 천연 자원의 부족현상을 가져올 거라는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문장에서 우리는 미래에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즉,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 = 스프롤 현상으로 인한 천연 자원 부족 현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며, 그러므로 빈칸의 답은 **스프롤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의 문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빈칸에서는 반드시 urban sprawl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선지 중 urban sprawl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추론까지 한 후 선지로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 ① move from urban areas to rural areas for living in farmland
- ② start to restrict urban sprawl and unnecessary development
- ③ limit farming in rural areas and development in urban areas
- ④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in a short period

자, 찾으셨나요? 정답은 2번이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31번 문제

Sometimes all the outcomes customers are trying to achieve in one area have a negative effect on other outcomes. This is very common when companies are busy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customer.’ Traveling salespeople, for example, may say they want a smaller cell phone, but they may not have thought about how hard that tiny phone will be to use. Carpenters may request a lightweight circular saw without thinking about the fact that it will no longer have the power to get through some of the more difficult jobs. When customers make requests for new product features, they are usually focused on solving just one problem and are not thinking of how their requested solution will _____. In this situation, customers request new features but reject the resulting product when they realize the ramifications of their suggestions — the added feature turns out to be worthless because of the problems it causes. *ramification: 파생된 문제

자, 이제 자동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알고 계시죠?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일단 1번과 2번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셨나요? 다 하셨다고 가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글의 소재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개선책”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죠?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제는 첫 번째 문장을 주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객들이 요구했던 개선책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주제문과 빈칸이 있는 문장을 함께 병치시켜 보겠습니다.

Sometimes **all the outcomes customers are trying to achieve in one area**
have a negative effect on other outcomes.

VS

they are not thinking of **how their requested solution** will _____.

여기서 all the outcomes customers are trying to achieve in one area가 their requested solution과 같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렇다면 빈칸의 답은 have a negative effect on other outcomes(부정적인 결과(효과)를 다른 결과에 가져오다)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_____ = have a negative effect on other outcomes

자, 그럼 빈칸의 답을 찾았으니 3번으로 가볼까요?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 ① impact other product or service functions
- ② delay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products
- ③ induce other customers to make additional requests
- ④ bring about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 ⑤ discourage companies from listening to customers' voices

자, 답은 몇 번인가요? 네, 1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분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엥? 왜 negative가 빠져 있지?”

그럼 왜 빠져있는지를 고민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에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2015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도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지만, 대수능이 대수능인 만큼 모든 문제가 논리적으로 출제된다는 가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느냐구요? 바로 negative가 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have an effect on = impact라는 것은 아실 거구요,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how에 밑줄을 쳐놓았다는 것을 주목하셨을 겁니다. 즉 how에 대한 답이 negative였다는 것이죠.

질문 : 그들이 요구했던 해결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답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이미 how에 negative에 대한 힌트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negative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Important Tip!!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주제는 어떻게 찾아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설명은 “Therefore 또는 However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중요하게 보라.”든지,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문장 또는 should/must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라.”든지, “문단의 첫 문장 또는 뒷 문장을 읽으라.”든지 뭐 여러 가지 skill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석적으로 말하자면, **글을 많이 읽으면 글의 주제가 보인다**고 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어 지문을 읽을 때 또는 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대화할 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로 대화를 상대방과 하다보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듣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영어로 된 지문을 많이 읽으라는 것. 그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수준이라도 좋으니 영어 지문을 많이 접해보세요. 그러면 소재와 주제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2011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5번

Errors and failures typically corrupt all human designs. Indeed, the failure of a single component of your car's engine could force you to call for a tow truck. Similarly, a tiny wiring error in your computer's circuits can mean throwing the whole computer out. Natural systems are different, though. Throughout Earth's history, an estimated 3 million to 100 million species have disappeared, which means that this year somewhere between three and a hundred species will vanish. However, such natural extinctions appear to cause little harm. Over millions of years the ecosystem has developed an amazing _____ to errors and failures, surviving even such drastic events as the impact of the Yucatan meteorite, which killed tens of thousands of species.

*meteorite : 운석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자, 일단은 1번과 2번은 하셨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으로 손꼽히는 문제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려워도 풀지(?) 마시고 꼭 풀어보도록 권하니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글의 소재는 “자연 시스템(natural systems)”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주제에는 소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주제를 내가 작성하려면 “자연 시스템은 ~ 이다.”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죠. 주제는 바로 “자연 시스템은 한 부분이 망가져도 전체가 다 망가지지 않는다.”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Natural systems are different, though.**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앞에서 자동차 부품이 하나가 망가지면 차를 다 버려야 되며, 컴퓨터의 부품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전체를 다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지만 자연 시스템은 다르다.”라고 했다는 점이죠. 즉, 제가 나중에 어려운 빈칸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의 순서 삽입 및 흐름 관계를 해결할 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지만**(여기서는 **though, though**가 이렇게 문장 뒤에 나오면 역접의 의미로 쓰인다는 기본적인 어법지식은 알고 계시겠죠?)”이라는 역접의 의미의 연결사 및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동사 관계가 반대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 군데가 고장 난다. -> 모두 다 버린다.

역접의 연결사 및 접속사 추가

한 군데가 고장 난다. -> 모두 다 버리지 않는다.

즉 “**Natural systems are different, though.**”의 의미는 “자연 시스템은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다 버려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되며, 즉 다시 풀어 쓰면 “자연 시스템은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도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말을 바꿔 쓰고 있는 부분이 지문에 있습니다. 네, “**However, such natural extinctions appear to cause little harm.**”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 빈칸에 들어갈 답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답을 적어본다.

바로 이 부분이 고난이도에 속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같이 한 번 풀어볼까요? 일단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millions of years the ecosystem has developed an amazing _____ to errors and failures,

문제는 이것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문장이 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큰 관건이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같은 방향성을 가진 말이나 단어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 답을 찾고자 하는 힌트의 범위가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도 주제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된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지요. 우리가 주제로 선택했던 문장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tural systems are different, though.
 However, such natural extinctions appear to cause little harm.

첫 번째 문장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해하기 쉬우므로, 그 문장 자체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장을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However, **such natural extinctions** appear to cause little harm.

VS

Over millions of years the ecosystem has developed an amazing _____ **to errors and failures,**

두 문장을 비교했을 때, 주제문의 such natural extinctions와 errors and failures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셨나요? 네, 둘 다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은 어법 및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djusted it.
 I adjusted **to** it.

어법이나 문장 구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to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의 문장은 의미가 완전 다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타동사로 내가 그것을 적응시키는, 즉 it이 적응의 대상이 되나, 두 번째 문장은 자동사로 주어가 it에 적응하게 되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시면 빈칸 뒤에 to가 있는 것 보이시나요? 네, to가 있는 관계로 앞에 생태계가 뒤의 errors and failures에 무언가를 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빈칸은 생태계가 실수나 실패에 대해 가지게 되는 속성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제문에서 “자연적인 멸종 현상이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기술 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때 문맥 상 자연적인 멸종 현상이 해를 입히지 않는 존재는 자연 그 자체, 즉 생태계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의 답은 “해를 입지 않는다.(little harm)”가 정답이 됩니다.

∴ _____ =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럼 이제 보기로 가볼까요?

3.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선지를 답으로 찾는다.

그런데 선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급 당황하게 되지요. 바로 보기 선지에 “해를 입지 않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진 단어를 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 ① connection(연결)
- ② intolerance(불관용)
- ③ insensitivity(무감각)
- ④ accessibility(접근)
- ⑤ subjectivity(주관성)

일단,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1번과 4번은 답이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1번과 4번은 같은 의미,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2,3,5번이 남게 됩니다. “실패나 실수에 해를 입지 않는다.”와 같은 말을 찾기 위해 단어를 넣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② “실패나 실수에 불관용하다.”
- ③ “실패나 실수에 무감각하다.”
- ⑤ “실패나 실수에 주관적이다.”

자, 그럼 감이 오시나요? 네, 답은 3번 이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던 관계로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실까요?